

심우도 통해 마음의 허상을 흔든다

임순례 감독 새 영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너 진짜 그렇게 괴로운 건지, 잊지도 않은 기억을 만들어낸 건지 잘 들여다 봐!' 임순례 감독이 새 영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에서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일약 흥행 감독으로 떠오른 임순례 감독이 '심우도'를 바탕으로 한 신작영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을 들고 관객들을 찾았다. 김도연의 동명 소설인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을 토대로 그린 로드무비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선호(김영필)는

시인이 되기 위해 공모전에 참가하지만 결국 낙선한다. 영화는 선호가 아버지의 소(떡보)를 팔러 나왔다가 소와 여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무작정 소를 팔아 여행을 하겠다고 뛰쳐나온 선호지만, 터무니없는 소 값에 그마저 포기하게 된다.

그러다 우연히 7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현수(공효진)에게 자신의 친구이기도 했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선호와 현수, 피터는 서로 친구였지만, 현수가 피터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헤어지고 만다.

선우는 아버지의 신고로 소도둑으로 몰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현수가 파출소에 있는 선호를 찾아오면서 우연히 선호와 소, 현수가 만나 여행을 하게 된다.

'심우도'의 첫 번째 장면인 소를 찾아가는 법은 그렇게 선호의 여행을 통해 그려진다. 소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워낭소리'와 달리 이 영화는 소가 등장할 뿐, 소에 초점이 맞춰지지는 않는다. 소와 함께 여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룰 뿐이다.

가령 현수와 헤어진 선호는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서에 간다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현수가 닭을 사 들고 찾아오는 장면이 있다. 현수가 선호에게 담담하게 묻는다. "너 진짜 그렇게 괴로워?"

선호는 닭고기를 뜯다 "이제 나타났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줄 알았나"라며 화를 낸다. 그런 선호에게 현수는 무심하게 "진짜 그렇게 괴로운 건지, 잊지도 않은 기억을 내가 새삼 만들어낸 건지 잘 들여다 봐"라고 말한 뒤, 경찰서를 나선다. 이 장면은 사람이 느끼는 괴로움의 감정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허상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감독의 연출 감각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그 장면에서 선호와 관객들은 견성(見性)으로 다가선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의미심장한 대사 외에도 임순례 감독이 연출한 멋진 풍경이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기존의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상업성을 지나치게 배제해 왔다면, 이번 임순례 감독의 신작은 불교의 사상 전달과 상업성 둘 다 충실하고자 했다. 하지만 불교를 모르는 관객들에게 선호와 현수의 로맨스는 자칫 지루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 화제의 책

산사에서 배우는 불교



주5일제 정착으로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찾는 장소 중에 하나가 전국의 명산과 산사다. 산사는 불보살님을 모시고 진리를 전하며 깨우침을 향해 정진하는 수행의 공간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산사를 방문하면 서로 각종 조형물과 용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불자들에게도 산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 도선사 주지 선목 혜자 스님이 <산사에서 배우는 불교>를 펴냈다. 스님은 전국의 유명 사찰 108곳을 5000여 불자들에게 함께 매월 순례를 다니면서 수행 문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사찰 구석구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수행의 굳건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 선목 스님의 생각이다.

<산사에서 배우는 불교>는 산사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조형물, 장엄물, 의식구 등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산문 >전각 >불보살 조형물 >불화 >외형 장엄물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불교입문 교과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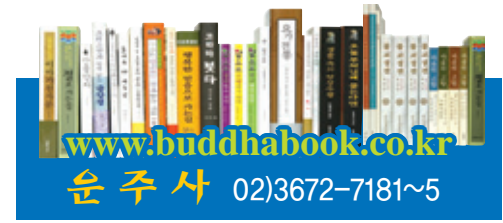
선목 스님은 "불교의 교리나 문화, 부처님 일대기, 경전의 내용을 바로 익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산사의 각종 조형물에 대한 설명과 그 속에 깃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선목 혜자 지음 | 도서출판 연종 펴냄 | 2만5000원 박기범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4	초기불교이해	장목	초기불전연구원
5	솔잎 사이 바람소리	무비 외	불교신문사
6	굿바이 티베트	M. 불평판	하얀연꽃
7	정성 성이 부처입니다	우용	휴림
8	붓다 브레인	릭 헨스	불광출판사
9	불교성지순례(연도·네팔)	대연	이스트워드
10	법정 스님 선묵	법정	다래한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윤남진 리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책의 제목이자 저자인 러셀(1872~1970)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저)자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진정 열린 지성의 활동에 기여하려면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적 차원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보편적 판별의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삶이란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이다."

러셀은 이것을 믿는다고 했다. 그 이유를 부연하자면, 최고조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기쁨과 타인의 행복을 비는 두 가지 마음의 결합이며, 이러한 사람이 지성인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방법을 찾아낼 목적으로 지식을 추구하게 이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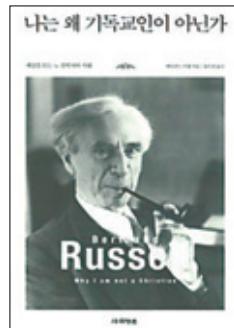
에드워드 윌슨(1929~), 개미에 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며, 사회적 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회생물학'을 주장한 미국의 생물학자이다. 그의 <통섭> 제11장에는 윤리와 종교에 관한 사회생물학적 연원들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어 있다. 그는 종교가 윤리적 기초 위에서 형성되고 이런저런 '도덕적 코드'를

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졌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그는 이타성의 기원을 집단유전학으로 설명하고, 종교적 황홀경 또한 신경생물학적 원천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분석철학자와 사회생물학자. 1930년과 1998년, 그러니까 68년의 시차를 두고 간행된 이 두 권의 책에 공통적으로 인용한 한 구절이 있다.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가 남겼다고 하는 "종교(신)은 두려움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말이다. 러셀은 두려움이

일종의 '안전'에 대한 갈망이라고 분석하면서 종교는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며, 고통은 죄를 씻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종교의 주장은 '자학의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인간은 죽음을 아는 유일한 개체일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영원한 존재를 갈망할 수 있다. 윌슨은 삶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종교는 부족의 역사에 대한 신화적 서사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며 우주 속에 신과 영혼이 거주하는 다른 세계를 만들고, 부족주의를 통해 권능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러셀은 '불관용'이 기독교의 확산과 함께 생겨났다고 단언하며, 그 배경으로 유



탁적 진보의 반대자로 변해버린다고 비판한다. 윌슨은 예찬자 집단인 모든 영장류에서 그러하듯이 '카리스마'를 남기는 수컷 지도자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이들이 남성 형상을 한 신에게 접근할 특권이 부여되면 그들의 권력은 필연적으로 증대되고, 이들 집단이 종교조직으로 진화하면서 그 종교의 창시자들과 후계자들의 권위는 마침내 신성한 경전에 새겨진다고 설명한다.

러셀은 "종교는 죄와 벌이라는 낡고 험악한 교

에 대한 열린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이들의 훌륭한 독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러셀이 서문에서 피력하듯이, 우리가 한번쯤 진지하게 '다른' 증거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는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증거에 입각해서' 확신하는 습관, 증거가 확실히 보장하는 정도까지만 확신하는 습관'에 입각한 열린 지성인의 자세로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러셀의 질문을 거꾸로 해보자. "나는 어떨 때 불교인이 아니라 하게 될까?" 나는 아마도 현실 불교가 과학의 새로운 발견으로 자명해진 사실들의 도전에 합리적인 답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오히려 과학적 사실들을 타대하게 될 때, 불교와 불교조직을 세속적 욕망의 실현을 목적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지도자에 의해 변경의 여지 없이 지배될 때, 지식과 이를 통한 지성의 계발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그래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 조류로 지속적으로 득세하고 신비주의를 조장함으로써 결국 '무지를 선포'할 때, 나는 현실 불교인이 아님을 선언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 장



나는 어떨 때 불교인이 아닐까?

대인의 정의관과 유대신만 존재한다는 배타적인 믿음을 지목한다. 물론 이는 유대인을 이방인에게 흡수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부족을 지키고자하는 반발로서 생겨났을 터이다. 윌슨은 이런 경향을 '이방인 혐오증'이라 부르고, 이는 도덕적 행동에 대한 선천적(유전적) 성향이 가지는 어두운 일면으로 해석한다.

또한 러셀은 어떤 사람의 말 속에 절대적인 진리가 담겨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 말을 해석하는 전문가 집단이 생겨나고, 이들이 어김없이 권력을 차지하며, 불변의 진리를 해석하는 것이 그들의 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지적, 도

리 대신에 과학이 뒷받침된 윤리를 가르치는 것을 방해한다. 만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영생의 관념 따위는 생겨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반면 윌슨은 좀 더 신중하다. 윌슨은 종교가 자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학적 발견과 통합되는 방법, 경험적 지식에 모순되지 않는 도덕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맹목적 신앙은 충분하지 않다고 충고한다. 그러면서도 또한 윌슨은 사람들은 성스러운 이야기를 필요로 하며 지적으로 합리화된 더 큰 목적을 가져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적 절망에 굴복하기를 거부할 것이라면서 인류의 종교성

예리한 심리묘사 • 아름다운 문장 • 놓칠 수 없는 재미와 감동!!

스님이 쓴 바로 그 소설!!



숲속의 문

길상지음

울창한 숲, 마음으로의 깊고 향기로운 여행

우리 모두는 숲 속에서 문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였노라. 눈으로 세계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몸으로 감각을 느끼는 지각작용의 숲 속에서 문을 찾아 헤매던 여행자였노라...' 나는 그 환영(幻象) 속에서 문을 찾아 숲 속에서 느끼지는 많은 풍경들을 모순이라고 느끼며 해결책을 찾아 헤매었다. '그것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허깨비였는데 마치 악몽을 꾸듯 몽환(夢幻)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렸던 나그네였노라!'



길을 찾아 숲으로 떠난 외로운 수행자의 구도소설

사랑 · 자유 ·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길 · 당신의 길 · 우리의 길



출가 후 한국과 일본, 미국 등지에서 수행과 교포를 실천하고 현재 글을 쓰며 수행에서 도식 포교당을 열고 '살이 곧 진리'라는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길상스님

값 10,000원